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과의 관계

송정희*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the mental illness

Jung-Hee S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도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 281명이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편견 및 차별행동과 음의 상관관계, 편견과 차별행동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봉사활동 경험 유무 등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대상자의 연령,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 대학생들의 차별행동 및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습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 대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공감, 편견, 차별행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against the mentally ill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The study included 281 nursing college students located on K province. Studies show that the empath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s positive fo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negative correlation,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empath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Discriminatory behavior differed depending on the age and grade of the subjects. In order to reduce discriminatory behavior and prejudic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increas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pportunities to improve empathy and also to require systematic education and practical cour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 future professional nurse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Prejudice,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경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2016년 정신질환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인구 중

*Corresponding Author : 송정희(sjh1994@hanmail.net)

Received June 14,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June 18, 2019
Published June 30, 2019

17개 정신질환의 평생유병률(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비율)은 25.4%이었고, 일년유병률을 기준으로 17개 정신장애에 470만 명이 이환된 결과를 나타냈다[1]. 하지만 적절한 조기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수의 대상자들이 정신건강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정신장애에 이환된 적이 있는 대상자 중의 22.2%만이 정신건강관련 서비스를 한번 이상 방문하였는데 이는 구미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1].

주변사람들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의 정신과 치료 서비스 이용률과 관련이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차별이나 편견 등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고 수용적일수록,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사회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3] 선행 연구결과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편견 등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복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 간호사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태도 및 인식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사회적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태도 및 인식은 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되면서 갑자기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경험 및 교육 등과 관련이 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사회화 과정에 의해 학습되는데[4],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사회화 과정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 믿음, 감정, 가족과 친구의 가치, 학습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다[5].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나 인식은 임상에서 정신질환자를 간호하게 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 간호 대학생 시기부터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미래에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대상자에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 대학생은 정신질환자의 질병, 증상, 치료 및 예후에 대해 정확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태도 및 인식을 형

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간호학 등 적절한 이론 및 실습교육과 다양한 경험 뿐 아니라 공감능력 역시 필요하다. 공감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격이나 차별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6].

이에 현재 간호 대학생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 그리고 태도나 인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인식에 대한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고[7-9],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및 편견의 실태를 조사한 것[10-12]이거나, 특정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6][13]으로, 전 학년의 간호 대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다른 관련 변수와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 및 공감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간호제공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인식 및 태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간호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K도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281명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에 진행되었다. 대상자수는 Cohen[14]의 분류를 참조하여 G^* power 3.1.9.2를 이용해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power = .95$, 효과크기 $p = .03$ 을 투입했을 때 산출된 표본수는 총 134명이다. 산출된 표본수는 흔히 최소 필요 표본수이므로 설문지 누락 및 불완전한 설문지 등을 고려하여 배부한 300부 중 총 281부(93.7%)를 회수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상대방의 내면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즉 상대방의 느낌과 의미를 지각하여 이해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며[15] 본 연구에서는 Mehrabin과 Ebstein[16]의 정서공감 척도, Davis[17]의 IRI검사, Bryant[18]의 정서공감 척도를 Park[19]이 번안, Jeon[20]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점수범위 1~5점). Jeon[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4$ 이었다.

2.3.1 차별행동

차별행동은 Cohen과 Strueing[21][22]의 OMI를 Hahn과 Lee[23]가 번안하고 Kim[24]이 수정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예'는 0점, '아니오'는 1점의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점수범위 0~1점).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2$ 였다.

2.3.1 편견

편견은 Kim[24]이 개발하고 Moon, Kwon, & Kim[6]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점수범위 1~4점). Moon, Kwon, & Kim[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2.60±6.06세 이었으며 대상자 중 54.1%(152명)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36.7%(103명)가 정신간호학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53명(18.9%)이 정신간호학실습 경험이 있었다.

3.2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은 <Table 2>와 같다. 공감능력은 3.61±.35점, 차별행동은 0.45±.26점, 편견은 2.05±.45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관계

대상자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공감능력은 차별행동($r = -.162, p < .001$) 및 편견($r = -.152, p < .05$)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차별행동과 편견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484, p < .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Age	<20	74(26.3)	22.60(6.06)
	20≤,<25	159(56.6)	
	25≤	46(16.4)	
Gender	Male	40(14.2)	
	Female	241(85.8)	
Religion	Yes	119(42.3)	
	No	162(57.7)	
Grade	1	74(26.3)	
	2	74(26.3)	
	3	82(29.2)	
	4	51(18.1)	
Personality	Positive	244(86.8)	
	Negative	37(13.2)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Yes	152(54.1)	
	No	128(45.6)	
The disabled in the family member	Yes	36(12.8)	
	No	245(87.2)	
Psychiatric counseling experience	Yes	30(10.7)	
	No	251(89.3)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Yes	53(18.9)	
	No	228(81.1)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classes	Yes	103(36.7)	
	No	178(63.3)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감능력은 봉사활동 참여경험($t=2.68, p=.008$),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 유무($t=2.20, p=.03$)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차별행동은 연령($F=4.66, p=.010$)과 학년($F=3.57, p=.015$)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 검중결과 25세 이상보다 20세 미만에서, 2학년보다 1학년이 차별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Table 2> The degree of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

N=281

Variable	Range	Mean	SD
Empathy	1 - 5	3.61	.35
Discriminatory behaviors	0 - 1	0.45	.26
Prejudice	1 - 4	2.05	.45

<Table 3> Correlation of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

N=281

Variable	Discriminational behaviors	Prejudice
Empathy	-.162**	-.152*
Discriminatory behaviors		.484**

* $p<.05$, ** $p<.001$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고 이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인식과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 3.61점으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을 파악한 Ji[25]의 연구에서 나타난 3.68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학생이 각각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공감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간적 면모'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봉사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며, 봉사활동을 통한 주민들과의 잦은 접촉이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히 통합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26].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은 0.4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편견은 4점 중 2.05점으로 중간점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실태를 조사한 결과[27] 일반인은 5점 중 3.11점

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경우 1.96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간호 대학생으로 대상의 특성 상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많을 수 있지만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가에 비해서 정신질환의 원인 및 증상, 태도 등에 대한 정확한 이론적 지식 및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차별행동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세 미만 대상자가 25세 이상 대상자보다, 1학년이 2학년보다 차별행동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행동은 아니지만 Yang의 연구[26]에서는 연령에 따라 편견에 차이가 나타나 높은 연령

의 일반인들이 가장 높은 편견을 보였으며 Lee[28]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질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각이나 사상이 자유롭고 이해의 폭이 넓다는 일반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26].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학 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아직 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Chung, Choi, Kim, Kim, & Choi[29]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실습 전 후 편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Kang[30]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정신간호실습 전후 편견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학년,

<Table 3> Differences in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and prejudice against mentally il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81

Characteristics	Category	Empathy			Discriminatory behaviors				Prejudice		
		M(SD)	t/F	p	M(SD)	t/F	p	S	M(SD)	t/F	p
Age	<20 ^a	3.60(.36)	1.01	.36	0.41(.23)	4.66	.010	a<c	2.00(.42)	2.58	.08
	20≤, <25 ^b	3.59(.35)			0.45(.27)				2.03(.47)		
	25≤ ^c	3.67(.36)			0.56(.26)				2.18(.43)		
Gender	Male	3.57(.37)	-.69	.49	0.42(.28)	-.82	.42		1.94(.53)	-1.01	.32
	Female	3.61(.35)			0.46(.26)				2.06(.43)		
Religion	Yes	3.63(.33)	-1.03	.30	0.45(.25)	.07	.95		2.05(.43)	-.23	.82
	No	3.59(.37)			0.45(.27)				2.04(.46)		
Grade	1 ^a	3.69(.36)	2.47	.06	0.38(.23)	3.57	.015	a<b	2.00(.40)	1.09	.35
	2 ^b	3.54(.40)			0.52(.27)				2.08(.48)		
	3	3.60(.32)			0.44(.26)				2.01(.44)		
	4	3.57(.32)			0.48(.29)				2.12(.49)		
Experience in volunteer activities	Yes	3.65(.34)	2.68	.008	0.43(.27)	-1.14	.25		2.00(.46)	-1.84	.07
	No	3.54(.36)			0.47(.26)				2.10(.44)		
The disabled in the family member	Yes	3.73(.33)	2.20	.03	0.43(.29)	-.61	.54		2.02(.49)	-.38	.70
	No	3.59(.35)			0.46(.26)				2.05(.45)		
Psychiatric counseling experience	Yes	3.68(.33)	1.25	.21	0.42(.26)	-.61	.54		2.07(.60)	.25	.80
	No	3.60(.36)			0.46(.26)				2.04(.43)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Yes	3.57(.31)	-.70	.49	0.48(.29)	.82	.42		2.13(.49)	1.50	.14
	No	3.61(.36)			0.45(.26)				2.03(.44)		
Experience in Psychiatric nursing classes	Yes	3.59(.32)	-.46	.65	0.45(.27)	.13	.90		2.08(.45)	.87	.38
	No	3.61(.37)			0.45(.26)				2.03(.45)		

S: Scheffe test

연령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정신간호학 실습기간, 실습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Song & An[31]의 연구에서도 정신간호학실습 전에 편견이 심한 간호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신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사고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에만 치중한다고 하였다. 이는 정신간호학 실습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이 어느 정도 실습교육의 효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파악하여 실습 전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도록 돕고, 정신질환에 대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31],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는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는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대상자의 성별, 연령, 문화적 차이, 사회경제적 차이 뿐 만아니라 질병에 따라 서로 차별을 두지 않고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질환에 대한 차별행동이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문직 교육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것이다. Yang & Yu[11]의 연구에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의 환경과 대중매체의 보도, 특히 뉴스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특히, 미디어의 표현 또는 제시방식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단서나 부정확한 정보의 제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는 대중매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 [27]. 이 역시 대중매체 영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 대학생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과 편견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감능력은 차별행동 및 편견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차별행동과 편견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Moon, Kwon, &

Kim[6]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 대학생의 공감능력과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대한 Kim[33]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정신질환에 대한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비교과과정의 운영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의 참여 기회 증진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질환을 가진 대상자 즉, 다양한 중증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실습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공감능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 및 편견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편견과 차별행동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경험, 가족 중 장애인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차별행동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감소시키고 미래의 간호사로서 올바른 인식과 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간호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며, 실습교육에 있어서도 사전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임상환경에서의 체계적인 실습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

_SEQ=339138

- [2] Jeong, M. Y. (2005). Attitudes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oward Mental Illness, (Unpublished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3] Cho, Y. S. (1981). A Study on the Family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11(1), 7-17.
- [4] Kim, H. S. (2002). Stereotypes, Prejudice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 9, 83-101.
- [5] Ko, M. S., Min, S., Yom, Y. H., Yoon, S. H., Lee, M. A., & Hong, E. Y. et al. (2015). Introduction of Nursing, Soomoonsa.
- [6] Moon, W. H., Kwon, M. J., & Kim, Y. H. (2016). Converging Influence of Empathy and Prejudice against Mental Illness on Discriminatory Behavior toward the Mentally Illness Patients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81-88. <http://dx.doi.org/10.15207/JKCS.2016.7.6.081>
- [7] Lee, J. E., Lee, Y. M., Lim, K. Y., & Lee, H. Y. (1999). A Survey for Community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Ill in Ansan Area,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3), 530-538.
- [8] Kim, G. H., & Kim, K. H. (2013). The teachers' Attitudes, Discrimination and Causes of Prejudice towards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2(2), 97-106.
- [9] Sakong, J. K., & Chae, J. U. (2001). A study of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in Pohang Communit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1), 50-62.
- [10] Noh, C. H. (2000). Comparative Study on the 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9(2), 145-155.
- [11] Yang, S., & Yu, S. J. (2001). The Stigma toward the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between before and after Learning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0(3), 421-435.
- [12] Kim, S. H. (2012). Nursing Students' Recognition of Right in Mentally Ill Persons and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Unpublished Mater's thesis, Dongshin University).
- [13] Lee, M. R., & Kwag, Y. K. (2018). The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in Nursing Students after 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8), 517-525.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8.51>
- [14]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Lowrence Erlbaum Associates.
- [15] Yang, S., Ha, Y. S., Lee, K. S., Lee, J. S., Kwon, H. J., & Lee, M. H., et al. (2013).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Hyunmoonsa.
- [16]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17]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103.
- [18] Bryant, B. K. (1982). An index of empath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3, 413-425.
- [19] Park, S. H.(1994), Empathy, Empathetic understanding. Wonnisa.
- [20] Jeon, B.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Unpublished Ma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21] Cohen, J., & Struening E. L. (1962). Opinions

- about mental illness in the personnel of two large mental hospita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4, 349-360.
- [22] Cohen, J., & Struening E. L. (1965).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Hospital differences in attitudes for eight hospital occupational group, *Psychological Reports*, 10(10), 25-26.
- [23] Hahn, D. W., & Rhee, M. K. (2003). Change in Social Representation of Mental Illness: comparing between 1976 year and 1995 year.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1), 191-206.
- [24] Kim, C. N. (2003). Development of the Social Stigma Scale of Mental Illness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3), 595-617.
- [25] Ji, E. J. (2014).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3), 1685-1697.
- [26] Yang, O. K. (1998). Social Stigma on People with Mental Disord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5, 231-261.
- [27] Seo, M. K., Kim, C. N., & Lee, M. K. (2008). A survey on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of the Mental Illness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28] Lee, D. Y. (2015) Factors Influencing Public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Mental illness(Unpublished Ma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29] Chung, Y. H., Choi, J. S., Kim, E. H., Kim, J. S., & Choi, H. K. (2008). A Study on the Stigma hel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against mental illness and Mentally Ill pati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9(2), 195-210.
- [30] Kang, I. P. (2009). The Change of Prejudice and Discriminatory Behavior in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after Clinical Performance Practice of Psychiatry(Unpublished Ma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 [31] Song, E. A., & An, H. J. (2016). Experience Process of Reducing Prejudices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in Psychiatric War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5(1), 37-47
<http://dx.doi.org/10.12934/jkpmhn.2016.25.1.37>
- [32] Han, S. J., & Yu, H. S. (2016). The effects of types of Responsibility frames and peril attributes in News Reports Related to the Mentally Ill Criminal on the Social Stigma Effects, *Speech & Communication*, 15(2), 42-76.
- [33] Kim, M. J. (2018). The Effect of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ttitude toward mental illnes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3), 9-15
<https://doi.org/10.22678/JIC.2018.16.3.009>

송정희(Jung-Hee Song)

[정회원]



- 2005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2월~2011년 2월: 김천과학대학 간호과 교수
- 2011년 3월~2015년 1월: 전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5년 3월~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학

· E-Mail : sjh1994@hanmail.net